

새 대통령을 바란다

애완동물 의보혜택 마련을

▲신중식 한결동물병원장



국민과 반려동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을 줄이고, 잃어버린 동물을 손쉽게 되찾기 위해 올 1월부터 애완동물등록제가 시작돼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견주들도 있고 관망하는 추세지만 5월 전후로 등록을 많이 할 것 같다. 좋은 취지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단순히 동물을 등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등록한 견주와 동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학교 체육 정상화 해달라

▲김홍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중·고등학교 체육 수업 일수가 많이 줄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정서순화를 위해 학교 체육을 정상화해달라. 광주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과 예산확보 역시 큰 문제이다. 오는 7월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성패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새정부가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올림픽·월드컵·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반드시 광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한다.

정책·예산 지역 불균형 없어야

▲조오섭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호남을 방문해 국민대통합과 인사대통합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정부 인사는 지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정지역과 학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국정운영의 편협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정부의 우를 범하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 국민 대통합의 인사를 해야한다. 또한, 정책과 예산에서 지역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국민을 시혜를 베풀어 주는 대상이 아닌 국정의 중심으로 바라보길 희망한다.

지방분권 추진... 자치시대 구현을

▲윤시석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최근 지방분권 관련 시책들이 뒷걸음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원을 확대하고,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등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 의회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양극화,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돼야 한다.

민생경제 살리는 정책 폼으면

▲이창재 광주 북구의원



우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을 폼으면 한다. 그간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재벌과 서민경제가 서로 상생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또 각종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복지예산을 차등지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정부는 복지예산을 지원하는데,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산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퇴임하는 전남 출신 첫 국무총리 김 황 식 단독 인터뷰

“내 본적 아직도 황룡리 99번지... 지역 자긍심 지키려 했다”

대답=정우식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내 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아에 애련(愛戀)에 물들지 않고/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여 년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흐르는 구름/머인 원뢰(遠雷)/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두 쪽으로 깨뜨려져도/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유치환 시인의 ‘바위’라는 시다. 김홍식 국무총리가 애송하는 시이기도 하다. 김 총리의 좌우명은 ‘운유하고 겸손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자’다. 김 총리는 ‘바위’가 자신의 좌우명을 그대로 나타내준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좌우명대로 2년5개월 동안 김 총리는 자신을 끝없이 낮추면서 1987년 직선제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됐다. 욕심이 없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항상 큰 산과 같은 존재. 너무나 낭만적이어서 ‘울보’라는 소리까지 듣는 명재상, 퇴임을 앞둔 김홍식 총리를 광주일보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최장수 총리이자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였다. 소화가 남다른 것 같다. ▲제가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몰랐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매우 기뻐하셨다는

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 있었다. -새정부에서 ‘책임 총리·책임 장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현대의 복잡 다기한 상황을 대통령 혼자 처리할 수 없다. 권한을 이양하고 분업과 협업을 해야 원만하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발탁해서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 좋다. -개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권력구조와 관련 개혁이 얘기되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가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7년 때보다 많은 것이 변했다. 헌법에도 이 변한 시대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호원 총리 후보자와 사시 동기로서 인연이 남다르다고 들었다. ▲인격적으로 성품도 온화하고 좋은 분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광주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도 광주를 잘 이해하고 지역민과 교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새정부 내각에 바라는 점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도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각이 대통령 중심으로 인화해야 성과를 거둘

“ 내각에 권한·책임 많이 줘야 새정부 성공 정치권 러브콜?... 솔직히 정치 관심없다 광주지법원장때 광주일보 연재 등 소통 노력 블로그·페이스북 개설해 경험 나누고 싶어 ”

이야기 들었다. 총리로 일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의 자부심과 긍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력했고, 노력하다 보니 2년 5개월 동안, 그야말로 ‘장수’할 수 있었다. 대개 출중한 분들은 이런저런 불행 때문에 흔히 본적을 서울로 옮기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제 본적은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99번지’다. -명재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여론조사 결과도 좋게 나온다. 비결이 무엇인가. ▲과분한 평가다. 겸손하려고 노력했고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려 했다. -재임 중 가장 어려웠던 때가 기뻐한 일을 꼽는다면. ▲구제역 파동 때 빨리 정리하지 못해서 살아있던 돼지·소를 살처분한 일이 생각난다. 공무원들은 힘들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은 안타까웠을 것이다. 또 연평도 포격 도발과 한일정보협정 체결 논란도 힘들었던 일이었다. 재임 기간에 G20 정상회담도 개최하고 동계올림픽 유치도 하는 등 경사가 많았지만,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점은 매우 큰 보람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재직기간 이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도 있었을 법한데. ▲감사원장이 될 때까지 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었다. 대통령이 나와 감사원장으로, 총리로 발탁을 하셨는지는 아직까지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제 총리에서 물러나면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생각이 다. 대통령과는 비교적 생각이 잘 맞고, 기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일치했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할 일은 없었다. 물론 세부적인 정책들에 있어 ‘나하

수 있을 것이다. -인사 소외와 5+2 광역경제권 계획 등으로 이명박 정부와 호남의 관계가 썩 원만치는 않았다는 평가다. ▲이 정부에서 호남에 대한 인사 소외가 있었다고 하는데, 통계를 정확히 분석해보면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대통령도 특정지역을 못살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광역경제권 계획은 권역별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국가를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지 이를 편향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지역 현안을 꽤 쟁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억에 남는 지역 현안은. 힘에 부친 경우는 없었는지.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저 나름대로 노력했던 기억이 많이 난다. 기반시설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전국의 관람객들이 여수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딱히 힘에 부친 경우는 없었지만, 총리로서 국가 전체적인 기준에서 어떤 현안들을 검토해야 할 경우에는 고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호남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호남의 미래를 위한 고언을 한다던.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뒤처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지역경제성장률 면에서 광주는 3.9%로 7대 도시 중 1위이며 제조업 성장률도 10.1%로 다른 대도시를 압도한다.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다들 어렵지만 광주·전남 지역은 단합을 잘하는 고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호남이 위축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솔직히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소통이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았다. 법원장 시절 지산통신, 감사원장시절 삼청 편지, 총리 재직시는 ‘연필로 쓰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을 이어왔다. 소통에 대한 총리의 철학은. ▲현대사회는 이해관계가 얽히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한다. 이를 소통을 통해 조화롭게 조정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은 깨지고 갈등이 심해진다. 가정·직장·정치권 등 모든 분야에서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소통’을 얘기하니까 광주지방법원장 재직시 광주일보에 연재했던 ‘판사가 말하고 싶은 법과 시민사회’가 생각난다. 그 역시 법조인이 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어머니와 누나 등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종종 표현하곤 했는데. ▲어머니는 저의 위대한 스승이다. 어릴 적 마루에서 놓고 있노라니 거지가 구걸하러 대문간을 들어섰다. 저는 “어머니, 거지 왔어요”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쌀 한 움큼을 그릇에 담아 나오시며 나직하게 “다음부터는 손님 오셨다고 해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느 책임자 강의에서 그

보다 더 강렬한 인간존중의 교육을 만난 적이 없다. -총리에서 시민으로 돌아가시게 된다. 시민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과 향후 계획은? ▲일단 좀 쉬면서 그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을 만나고 싶다. 총리를 그만둔 뒤에라도 사회가 보다 따뜻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나름의 기여를 하고 싶고, 총리직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되도록 많이 나누고 싶다.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도 개설해 운영해 볼 생각이다. 또 이제 자유사위였으니 고향에도 자주 가고 고향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생각이다. -젊은 세대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삼포 세대’로 불릴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 ▲인생은 긴 마라톤이다. 성실하게 뛰며 뛰며 걸어 가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회일비하지 않고 길게 생각하면 좋겠다. -지역민이 드림 말씀이 있다면. ▲서로 잘 화합하고 나누고 배려했으면 한다. 나눔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통의 리더십 ‘명재상’

‘폐친’만 28만8000명

■ 김홍식은 누구

오는 26일 퇴임하는 김홍식(65) 국무총리는 장성 출신으로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1974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아 왔다. 서울고법판사와 전주지법 부장판사, 광주 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광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친 그는 2005년 11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그는 34년간의 법조인 생활 동안 풍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치주의 실현에 진력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특히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등 사회 정의 실현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2004년 광주지법원장 재직시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매주 전 직원에게 법원 업무 개선점,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느낀 소회 등을 이메일로 보냈고, 직원들이 이를 모아 ‘지산통신(芝山通信)’이란 책자를 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점이 부각되면서 그는 2008년 7월 감사원장에 내정됐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9월에 공식 취임했다.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복에 기여하는 감사’를 감사원 운영 기조로 내걸고 공직기강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춰 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데도 주력해 왔다. 그러던 2010년 9월 그는 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10월1일 취임했다. 최근 김 총리는 총리실 페이스북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을 모아 ‘연필로 쓴 페이스북, 지산통신’이란 책을 펴냈다. ‘연필로 쓴 페이스북’은 지난 2011년 3월27일 김 총리가 국무총리 전용 메모지에 연필로 쓴 글을 직접 스캔해 올리면서 시작됐고, 2012년 12월17일 100회로 마침표를 찍었다. ‘폐친’이 28만8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김 총리는 인세 전액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예술품 감상에도 조예가 깊다. 부인 차영은씨와 1남 1녀.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